#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19일부터 1인당 20만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추진

진안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2만4,330명이며,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진안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마을별로 일정을 짜서 마을 회관에서 지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동 기간 내에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말에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급 할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산림치유관광 거점화' 총력

## 진안군, 백운면 신광재 일원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추진

진안군은 백운면 노촌리 신광재 일원을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핵심 사항이다.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고도·표고 완화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27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의제 처리된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전북자치도가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지구 지정 용역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지정돼 전북도-진안군 간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월 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착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신광재 일원

'작은 대관령'으로 불리는 진안군 신광재 지구는 선도지역 신청 면적이 33만㎡로, 인접 부지에 산림청 주관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고,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올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조성돼 있다.

진안군은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신광재 일원을 주변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치유관광 거점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신광재 일원을 산림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테마형 숙박 시설, 산악레포츠 시설 갖춘 산림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과 도약을 통해 진안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3월 8~9일 개최

##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서 다양한 공연 · 체험 진행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된다.

고로쇠 축제는 매년 진안군 운장산 일대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첫 날 10시 진안중평굿 보존회의 중평굿으로 흥을 돋우고 오후 2시 고로쇠를 활용한 개막퍼포먼스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청정 고로쇠를 직접 채취·시음 체험할 수 있는 〈출발! 숲탐험대〉, △고로쇠를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활용한 〈진안고원길 걷기〉,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축제 중간중간 고로쇠 수육 시식회, 고로쇠 찐빵, 달콤한 팝콘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해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특산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행사장 앞쪽으로는 약500㎡ 규모의 '구름 아래 물놀이터'를 개방하며 떡볶이, 어묵, 호떡, 고로쇠 에이드 등 간식류 운영 부스도 확대한다.

더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방문 편의를 위해 운일암반일암 제1·2 임시주차장 ↔ 축제장 간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하고 올해는 진안읍에서 축제장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청정 고로쇠 물을 축제기간 방문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운장산에서 자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성분이 풍부하여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소화력을 높여 신체 정화에 큰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남궁현 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청정 진안고원 운장산의 고로쇠를 통해 좋은 기운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반딧불 한우 경쟁력 높인다

## 한우 개량 · 질병 · 축사환경 관리 등 한우 사양관리 교육

무주군이 지역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1백여 농가가 참여해 (주)DB&A 김점현 박사로부터 한우 개량과 질병, 축사환경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 효율적인 사료 급여 방법부터 사육 환경 관리 및 질병 예방법 등도 공유하는 자리가 돼 큰 호응을 얻었다.

농가들은 "한우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두루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교육이 반딧불 한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운 대로 잘 한번 키워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는 220여 농가(7천4백여 두)로 지난해 '1++ 등급' 출현율이 33.8%를 기록하며 전북 1위를 달성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평년 대비 낮은 축산물 가격, 그리고 수급 과잉 문제로 인해 한우농가의 경영 여건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주군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일등 한우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 한 해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도모해 간다는 방침으로 총 사업비 13억 4천4백여 만 원을 투입해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과 품종 개량 및 섬유질배합사료 등 구입,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고품질 한우 생산에 주력한다.

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및 분뇨처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청소년 예체능 진로 적합성 프로그램 진행

장수군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과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예체능 진로 적합성 프로그램'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예체능 진로 적합성 프로그램과 '체인징메이커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청소년들의 예체능 분야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실용댄스 및 체육 입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실기 연습을 수행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최훈식 군수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도 예체능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장수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5대로 상반기에는 90대(승용차 50대, 화물차 4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고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며 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 택배용 차량,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차종별 상세 지원금액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소방서, 전기화재 예방 위한 안전수칙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14일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관련,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기화재는 전기 히터·전기장판·가습기 등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전기제품의 과부하, 배선불량, 장시간 사용 등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한 사용이 필수적이다.

전기제품 사용시 지켜야할 안전수칙에는 △난방기구 주변 인화물질 사전 제거 △난방용품 열선 꺾임 및 눌림 주의 △전기장판 위 두꺼운 이불 및 라텍스 등 깔지 않기 △미사용시 전열기구 전원차단 △주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설치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